

미국 “무역법 301조로 타국 불공정관행 검토중”

브라질·중국에 조사개시...애플가들 ‘과잉 생산’ 조사 한국 조사대상 포함 예상...소송 관계없이 ‘관세 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오는 3월 말~4월 초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지에 타격이 될 것인지를 질문받자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중국과 싸우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다. (미국 내) 대두 농가, 항공기와 의료기기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서 “우선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

는지 등 합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지 확인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리면서 “이번 회담은 안정성 유지, 합의 이행 모니터링, 미래를 위한 관계 구축 측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 및 같은 법 301조에 의한 조사 시작 등의 조치가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1조 조사와 관련,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다. 그들은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기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0일 성명에서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같은,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올러 그리어 대표는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이 상호관세와 “같은 유연성은 없다”면서도 “(트럼프)는 우리에게 매우 견고한 수단을 줬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사를 하고 필요한 곳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큰 영향력과 미국 산업 보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 “이런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합의의 우리 몫을 재건(reconstruct)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가장 5개월이 시한인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가 종료된 뒤에는 “이 도구가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수행할 것이다. 상무부는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를 보유하고 있다. 많은 관세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며 “현실은 우리가 (관세) 정책을 가늠한 한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CBS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는 그간 미국이 체결한 새로운 무역협약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들을 지킬 것이며, 우리 파트너들도 이를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합의가 깨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동부 지역에 22~23일(현지시간)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겨울 눈 폭풍이 예보되면서 항공사들이 이틀간 약 9000편의 운항을 취소했다. 사진은 매사추세츠주 윈스턴에서 한 여성이 집 앞의 눈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美동부 겨울 눈폭풍 강타...항공 9000편 결항 뉴욕시 2017년 이후 첫 눈폭풍 경보...최대 70cm 폭설 예상

미국 동부 지역에 22~23일(현지시간)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겨울 눈 폭풍이 예보되면서 항공사들이 이틀간 약 9000편의 운항을 취소했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워어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22일 오후 5시 기준 항공사들은 이날 운항하는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총 3700여편을 취소했다.

다음 날인 23일에도 총 4800편을 취소하는 등 이를 새 9000편에 가까운 운항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운항이 지연된 항공편은 22일 2만편에 달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취소·지연되는 항공편수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항별로는 뉴욕시와 보스턴시 인근 공항의 항공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23일 기준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출발 항공편의 85%가 취소됐고, 국내선 위주인 뉴욕 라 Guardia 공항도 출발 항공편의 95%가 취소됐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도 같은 날 출발 항공편의 92%가 취소됐다.

뉴저지주의 뉴어크 국제공항에서도 23일 출발 편 77%가 결항을 예고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한국 항공사들도 22~23일 뉴욕, 보스턴 등 미 동부 주요 도시와 인천 사이를 운항하는 일부 항공편을 취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완벽한 시공, 완전한 안전”

대선소방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자)대선소방설비산업
(주)대선이엔지
(자)대선산업개발

(주)일등소방
(주)유덕전기소방공사
(주)엔에프건설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34(대선소방그룹)
E-mail : hd0119@hanmail.net
Fax : 062-371-7118
Tel : 062-381-7119